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김안나

충부대학교 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The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on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An-Na Kim

Major in Child Care, School of Welfare,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은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K와 D지역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유아교사 243명이다. 연구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의 수준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의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탄력성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18%였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활력 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열의 활력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전념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고,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가 교사의 전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몰두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이 교사의 몰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질 높은 유아교육의 보장과 유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증진되어야하며, 이는 나아가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의 향상을 위한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The study subjects were 243 teachers who were work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es located in K and D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18.0 Program.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was identified that the level of happiness,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high. Secondly, happiness,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Thirdly, the explanation power of happiness for ego resilience was 18% and self-acceptance, a subfactor of ego resilience, had an effect. Also, the explanation power of happiness for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 was vitality of 23%, and it was found to affect the subfactors of vitality of job engagement in the order of self-acceptance,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and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Also, the explanation power of happiness factors for undivided atten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was 17%, and self-acceptance and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undivided attention of teachers. Lastly, the explanation power of happiness factors for absorption of early childhood teacher was 14%, and self-acceptance among happiness factors of teacher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undivided attention of teachers. Thes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quality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happiness should be improved for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is may be a positive factor for the improvement of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Keywords :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Ego Resilience, Job Engagement

*Corresponding Author : An-Na Kim (Joongbu Univ.)

Tel: +82-10-5235-2831 email: annakim21@Joongbu.ac.kr

Received November 16, 2017

Revised (1st December 6, 2017, 2nd December 7, 2017)

Accepted December 8, 2017

Published December 31, 2017

1. 서론

‘행복’이란 성별, 지위, 계층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보편적 가치이며,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권리이다[1]. 인간은 누구나 삶속에서 행복하기를 기대하며, 사람마다 느끼는 행복의 기준과 의미는 다를 수 있으나, 행복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사실에 이견은 없다. 행복이란 생활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트한 상태이거나 또는 심신의 욕구가 충족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 상태로 의 정의된다[2]. 한편 행복은 자신이 삶 전반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해당하는 주관적 안녕감이라고 정의되기도 한다[3].

최근 교육 현장에서도 행복은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교육관계자들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유아들이 유아기에 느끼게 되는 행복한 감정은 이후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아교육의 목적은 각 개별 유아가 그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역량개발에 있다[4].

사회변화에 따른 가족의 구조적 변화와 보육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기관과 교사에 대한 역할 강조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아에게 의미 있는 주변 성인의 행복감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유아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5]. 따라서 영유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영유아교사의 행복이 선행되어야 한다[6]. 이처럼 유아교사가 느끼는 행복은 직무에 대한 만족과 열의를 가지게 되는 주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기탄력성과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유아교사에게 행복의 중요성에 대한 의미를 찾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의 수준은 어떠한가?
2.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3.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이론적 고찰

2.1 행복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행복은 자신의 주변 세계와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여 조화롭게 행동하며,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하며, 각종 질병의 발생률을 낮춤으로써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7]

일반적으로 행복감이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느끼게 되는 만족과 기쁨의 정서 상태를 의미한다. 교사의 행복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사의 행복감은 직무스트레스 및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8] 특히 유아교사들의 행복감의 경우, 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유아교사가 행복감을 느끼면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성공적으로 적응생활에 적응하며[9], 이는 유아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과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에서는 교사의 심리적 안녕감이 자아탄력성의 감정조절,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긍정적 미래지향성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10].

이상을 종합해보면 교사가 행복할 경우,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고, 행복한 마음으로 유아를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즉, 교사의 행복감은 교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유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자아탄력성이란 자신의 스트레스나 어려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등의 심리학에서 주로 개인의 정신건강과 주관적 안녕을 연구할 때 등장하는 개념이다. 즉, 개인이 어려운 삶의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풍족해지는 능력을 의미한다[12].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스트레스와 위기 상황에 잘 적응하며 상황에 알맞은 요구에 적절하게 행동하며 대인관계에 있어서 자신감을 나타낸다[13].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자아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교육현장에 일어나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민첩하게 대응하는 반면에 낮은 자아탄력성의 교사는 위기나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가질 수 있다[14].

이처럼 자아탄력성은 역동적인 유아교육 현장에의 과

중한 업무와 직무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교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아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아교육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행복감이란 긍정적인 정서로서 자아탄력성을 높이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행복 간에는 관련성이 높으며,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간 역시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미친다고 보고 한다[15]. 뿐만 아니라 [16]은 예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밝힌바 있으며, [17]은 유아교사의 심리적 안녕감과 자아탄력성 간의 관계를 연구하며 관련성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종합하면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은 상호 영향을 미치며 교사 직무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18]는 교사의 자아탄력성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으며, [19]는 자아탄력성은 고통과 괴로운 상황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삶을 통한 행복감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유아 교사의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은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았거나 직무만족도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들로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본 경우는 미미함으로 본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2 행복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지각하며 일반적으로 친사회적 활동을 하며 사회성이 높고 협력적이며, 문제해결력 뿐만 아니라 창의력 또한 높다[20]. 실제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행복감과 직무만족도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21][22]. 선행연구에서는 행복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에는 직무에 따른 역할 수행을 잘한다고 밝히고 있다[23][24]. 특히 행복한 상태의 교사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으며 사회적 관계에서 더 적극적인

고 스트레스에도 강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교사의 행복감은 교사헌신에 영향을 주어, 행복감이 높은 교사의 경우에는 사랑과 정성으로 영유아를 대한다[25].

[26][27][28]은 교직에 대한 열정, 교사효능감, 직무만족도 변인들이 교사-유아 상호작용에 영향을 줌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기제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유아교사의 행복감은 교사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유아교사의 직무만족과 유아에게 긍정적인 영향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질 향상에 있어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그들의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K와 D 소재 유아교육기관에 재직 중인 유아교사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회수된 252부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지 9부를 분석에서 제외시키고 총 243부를 최종분석에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Study Subjects

	classification	frequency	percentage
		(n)	(%)
age	20 to 29 years	34	14.0
	30 to 39 years	84	34.6
	40 to 49 years	60	24.7
	Over 50 years old	65	26.7
	Less than 3 years	77	31.7
Teaching career	4 ~ 6 years	159	65.4
	7 ~ 10 years	2	0.8
	11 ~ 15 years	5	2.1
Education	Graduated from two-year and three-year colleges	120	49.4
	Graduated from 4-year college	50	20.6
	Graduate school graduation	43	17.7
	Etc	30	12.3
	teacher	144	59.3
rank	Manager teacher	73	30.0
	vice chief/ chief	26	10.7
	National and public kindergarten	9	3.7
Work Institution	Private kindergarten	10	4.1
	National and Public Daycare Centers	40	16.5
	Private Daycare Center	184	75.7
	the whole	243	100

3.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에 관한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각 척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2.1 행복감

Table 2. Composition of questions and credibility by subfactor of the measurement tool of happiness

Subfactor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edibility
self-acceptance	3,8,18,22,24,37,40	7	.685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4,9,13,19,25,36,44	7	.738
autonomy	5,10,15,20,31,34	6	.767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6,14,16,23,28,38,42	7	.794
purpose of life	7,11,17,21,26,30,33	7	.839
personal growth	2,32,35,39,43	5	.858
the whole		44	.911

본 연구에서 사용된 행복감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 수는 44개이며,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환경에 대한 통제력, 개인적 성장, 삶의 목,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성장 등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2 자아탄력성

Table 3. Composition of questions and credibility by subfactor of the measurement tool of ego resilience

Subfactor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edibility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1,4,8,12,16,18,20	7	.875
emotional adjustment	2,5,7,9,11,13,19,21	8	.877
positive future orientation	3,6,10,14,15,17	6	.860
the whole		21	.935

자아탄력성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 수는 21개이며,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 지향성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

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3.2.3 직무열의

Table 4. Composition of questions and credibility by subfactor of the measurement tool of job engagement

Subfactor	question number	number of questions	credibility
vitality	1,2,3	3	.721
undivided attention	4,5,6	3	.799
absorption	7,8,9	3	.830
the whole		9	.895

직무열의 측정도구의 전체 문항 수는 9개이며, 활력, 전념, 몰두 등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별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하위요인별점수가 높을수록 직무열의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4. 연구결과

4.1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의 수준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 수준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Level of happiness,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lassification	M	SD
Happiness	self-acceptance	3.35	0.49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2.99	0.53
	autonomy	3.12	0.45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3.31	0.43
	purpose of life	2.99	0.43
	personal growth	3.11	0.60
	the whole	3.18	0.30
Ego Resilience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3.90	0.64
	emotional adjustment	3.90	0.57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4.14	0.57
Job Engagement	the whole	3.97	0.52
	vitality	3.49	0.71
	undivided attention	3.80	0.63
	absorption	3.83	0.62
	the whole	3.71	0.58

Table 5를 보면, 유아교사의 전체 행복감 수준은 3.18(SD =.30)으로 보통보다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 중에는 자아수용(M =3.35, SD =.49)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환경에 대한 지배력(M =3.31, SD =.43), 자율성(M =3.12,SD =.45), 개인적 성장(M =3.11, SD =.60)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삶의 목적(M =2.99, SD =.43), 긍정적 대인 관계(M =2.99, SD =.53)이 보통 수준으로 다른 요인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전체 자아탄력성 수준은 3.97(SD =.52)이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긍정적 미래지향성(M =4.14SD =.57)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M =3.90, SD =.64), 감정조절(M=3.90, SD =.57) 등이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 교사의 전체적인 직무열의 수준은 3.71(SD =.58)로 높은 편이었고, 하위요인 중에서는 몰두(M =3.83, SD=.62)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전념(M =3.80, SD =.63), 활력(M =3.49, SD =.71)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6을 보면,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하위요인과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 간에는 대부분 유의미한 정적 상관($r = .15, p <.05$)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은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복감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요인은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상관관계를 통해 교사의 행복감 중 자아수용이 높을수록 교사의 자아탄력성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교사의 긍정적 대인관계와 긍정적 미래지향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14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가 긍정적 대인관계를 높게 지각할수록 긍정적 미래지향성은 낮게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성장과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간의 상관관계 계수는 -.14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A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ego resilience, and job engagement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lassification	Happiness						
	a	b	c	d	e	f	g
h a	1						
a b	-.062	1					
p p	.217**	.260**	1				
I d	.333**	.278**	.354**	1			
n e	.160*	.536**	.349**	.244**	1		
e f	-.018	.570**	.406**	.237**	.419**	1	
s s	.487**	.669**	.631**	.622**	.708**	.640**	1
Ego h	.308**	-0.047	-0.061	0.043	-0.046	-.146*	0.101
Resi i	.278**	0.085	-0.035	0.044	-0.039	0.084	.177**
enc j	.431**	-.142*	-0.046	0.062	-0.072	-0.104	0.111
e k	.376**	-0.027	-0.054	0.055	-0.057	-0.057	.150*
Job l	.388**	0.12	0.043	0.049	0.077	-0.088	.225**
Engc m	.383**	0.089	0.058	.178**	0.069	0.001	.268**
gem n	.333**	0.003	-0.006	.195**	0.059	-0.083	.188**
ent o	.415**	0.082	0.036	.154*	0.077	-0.065	.256**

Ego Resilience				Job Engagement			
h	i	j	k	l	m	n	o
1							
.642**	1						
.678**	.662**	1					
.886**	.886**	.864**	1				
.496**	.397**	.425**	.500**	1			
.526**	.453**	.519**	.565**	.723**	1		
.454**	.419**	.542**	.529**	.595**	.730**	1	
.555**	.475**	.555**	.597**	.882**	.918**	.864**	1

* p <.05, ** p <.01

a self-acceptance, b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c autonomy, d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e purpose of life, f personal growth, g the whole, h diversity of interest and concern, i emotional adjustment, j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k the whole, l vitality, m undivided attention, n absorption, o the whole

또한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직무열의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r=.256, p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행복감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은 직무열의의 하위요인인 활력, 전념, 몰두 요인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행복감의 나머지 하위요인인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 요인은 직무열의 하위요인인 활력, 전념, 몰두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아교사의 행복감 중 자아수용이 높을수록 직무열의의 활력, 전념, 몰두가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의 간에는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상관($r = .597,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하위요인인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감정조절, 긍정적 미래지향성 요인은 직무열의의 하위요인인 활력, 전념, 몰두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양의 선형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교사의 활력, 전념, 몰두 요인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긍정적 미래지향성 성향의 유아교사일수록 교직생활에서의 활력적이며 직무에 전념을 다하고 몰두하는 성향이 높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4.2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가 4 이하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Durbin-Watson 값은 1.46으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해 있으므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The effects of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on the whole ego resili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Ego Resilience					Durbin-watson	
		B	SE	β	t	R ²		
Happiness	a constant	3.15	0.33		9.48			
	self-acceptance	0.48	0.07	0.45	6.85***		1.23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12	0.08	0.12	1.48		1.88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13	0.08	-0.12	-1.65	0.18	8.43***	1.38
	purpose of life	-0.06	0.08	-0.05	-0.77			1.33
	personal growth	-0.17	0.09	-0.14	-1.91			1.57
		0.00	0.07	0.00	0.02			1.68

*p<.05, **p<.01, ***p<.001

Table 7을 보면,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 전체에 미친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하위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45, t = 6.85, p < .001$)이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대인 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자율성, 삶의 목적, 개인적 성장은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Table 8>에 의하면 유아교사의 행복감 요인들이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3%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35, t = 5.23, p < .001$)이 교사의 흥미와 관심의 다양성 요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행복감 요인들이 감정조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감정조절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38, t = 5.60, p < .001$)과 긍정적 대인 관계($\beta = .19, t = 2.31, p < .05$), 삶의 목적($\beta = -.19, t = -2.57, p < .01$)이 교사의 감정조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 요인들이 긍정적 미래지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긍정적 미래지향성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22%로 세요인 중에서는 높은 편이었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48, t = 7.47, p < .001$)이 교사의 긍정적 미래지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 The effects of happiness of kindergarten teachers on the whole ego resilience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
Happiness	a constant	3.21	0.42		7.70		
	self-acceptance	0.46	0.09	0.35	5.23***		
	diversity of interest and relationship	0.15	0.10	0.12	1.49	0.13	5.88***
	autonomy	-0.11	0.10	-0.08	-1.06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05	0.10	-0.03	-0.44		

	purpose of life						
	-0.11	0.11	-0.08	-1.00			
	personal growth	-0.15	0.08	-0.14	-1.79		
	a constant	3.02	0.37		8.06		
	self-acceptance	0.44	0.08	0.38	5.60***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21	0.09	0.19	2.31*		
emotional adjustment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16	0.09	-0.13	-1.77	0.14	6.42***
	purpose of life	-0.10	0.09	-0.07	-1.05		
	personal growth	-0.26	0.10	-0.19	-2.57**		
	a constant	0.13	0.08	0.13	1.68		
	self-acceptance	3.26	0.35		9.27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55	0.07	0.48	7.47***		
positive future orientation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04	0.08	-0.03	-0.43	0.22	11.00***
	purpose of life	-0.13	0.09	-0.10	-1.50		
	personal growth	-0.04	0.09	-0.03	-0.47		
	a constant	-0.12	0.09	-0.09	-1.28		
	personal growth	0.01	0.07	0.01	0.15		

*p<.05, **p<.01, ***p<.001

4.3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직무열의의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독립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가 4 이하로 낮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Durbin-Watson 값은 1.93으로 기준 값인 2에 근접해 있으므로 잔차의 자기상관은 문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를 보면, 유아교사의 직무열의의 전체에 대한 유아교사의 행복감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21%로 나타났고, 유아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44, t = 6.85, p < .001$)과 긍정적 대인 관계($\beta = .23, t = 2.86, p < .01$), 개인적 성장($\beta = -.16, t = -2.06, p < .05$)가 직무열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율성과 환경에 대한 지배력, 삶의 목적은 직무열의에 의미 있는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Table 9. The effects of happiness of kindergarten teachers on the whole job engagem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Job Engagement					VIF	Durbin-watson
		B	SE	β	t	R ²		
	a constant	1.98	0.36		5.44			
	self-acceptance	0.52	0.08	0.44	6.85***		1.23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25	0.09	0.23	2.86**		1.88	
Engagement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06	0.09	-0.05	-0.66	0.21	10.34***	1.38
	purpose of life	0.01	0.09	0.01	0.09		1.33	
	personal growth	-0.05	0.10	-0.04	-0.49		1.57	
	a constant	-0.15	0.07	-0.16	-2.06*		1.68	

*p<.05, **p<.01, ***p<.001

Table 10. The effects of happiness of kindergarten teachers on subfactors of job engagement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B	SE	β	t	R ²	F
	a constant	1.69	0.44		3.85***		
	self-acceptance	0.66	0.09	0.46	7.18***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46	0.11	0.34	4.34***		
activity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02	0.11	0.01	0.21	0.23	11.52***
	purpose of life	-0.22	0.11	-0.14	-2.05*		
	personal growth	-0.09	0.12	-0.06	-0.79		
	a constant	-0.26	0.09	-0.22	-3.01**		
undivided attention	a constant	1.90	0.40		4.70***		
	self-acceptance	0.51	0.08	0.40	6.07***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22	0.10	0.18	2.24*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06	0.10	-0.04	-0.63	0.17	8.02***
	purpose of life	0.06	0.10	0.04	0.59		
	personal growth	-0.09	0.11	-0.06	-0.82		
	a constant	-0.06	0.08	-0.06	-0.80		
absorption	a constant	2.34	0.41		5.77***		
	self-acceptance	0.39	0.09	0.31	4.60***		
	positive personal relationship	0.08	0.10	0.06	0.77		
	autonomy control over the environment	-0.14	0.10	-0.10	-1.38	0.14	6.41***
	purpose of life	0.19	0.10	0.13	1.88		
	personal growth	0.04	0.11	0.03	0.35		
	a constant	-0.12	0.08	-0.12	-1.48		

한편,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직무열의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을 보면, 유아교사의 활력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23%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 자아수용($\beta = .46, t=7.18, p < .001$), 긍정적 대인 관계($\beta = .34, t=4.34, p < .001$), 환경에 대한 지배력($\beta = -.14, t=-2.05, p < .05$), 개인적 성장($\beta = -.22, t=-3.01, p < .01$)은 교사의 활력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편, 유치원 교사의 전념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40, t=6.07, p < .001$), 긍정적 대인 관계($\beta = .18, t=2.24, p < .05$)가 교사의 전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몰두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고, 유아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beta = .31, t=4.60, p < .001$)이 교사의 몰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의 수준을 살펴본 결과, 먼저 유아교사의 전체적인 행복감 수준은 보통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하위요인별로는 긍정적 대인관계가 가장 높았고 자율성이 다른 요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행복감,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유아교사의 자아탄력성과 직무열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환경에 대한 지배력이 높은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잘 발달되어 있다고 밝힌 [29]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자아탄력성과 행복감의 관계를 연구한 [30][31][32]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자아탄력성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18%였으며, 자아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교사의 직무열의에 대한 행복감의 설명력은 활력 2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무열의 활력의 하위요인인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지배력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전념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7%로 나타났고, 자아수용, 긍정적 대인 관계가 교사의 전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아교사의 몰두에 대한 행복감 요인들의 설명력은 14%로 나타났고, 교사의 행복감 요인 중에서는 자아수용이 교사의 몰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3]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개인적 성장성이 높은 유아교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새로운 일과 경험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자아탄력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복감은 자아탄력성을 높이는데 주요한 변인이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그들의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유아교사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유아를 가르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관계자들의 이해와 관심이 증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교사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그들의 심리적·정서적 측면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으로 유아교사가 유아교육현장에서 보다 스트레스 상황에 유연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자아탄력성과 그들의 직무열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아교사의 행복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의 결과는 행복한 교육과 유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교사의 행복이라는[34]인 식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따라서 유아교사의 행복감이 자아탄력성, 직무열의의 관련성이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유아교사의 행복감을 도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1] J. S. Lee, E. J. Kim, The Effects of Children's Temperament, Parent-child Communication Styles, and Peer Relationships on Children's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2, no. 5, pp. 433-445,

- 2000.
- [2]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Standard Korean dictionary. Seoul: Doosan Donga. 1999.
- [3] Diener, E.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pp. 34-43, 2000.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55.1.34>
- [4] K. M. Lee, Focus Group Interview for Exploring Constructive Components and valid assessment Method of Happines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6, no. 1, pp. 499-514, 2016.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6.36.1.022>
- [5] D. R. kim, J. W. kim, Study of Correlation Between the Happiness of Young Children and of Parents.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3, no. 6, pp. 311-333, 2008.
- [6] H. I. Hwang, E. J. Kim, J. H. Tak, A study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perception of empowerment according to their personal traits and working conditions. *The Korean Society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2, pp. 221-246, 2013.
- [7] Diener, E., Tov, W. Subjective well-being and peac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63, no. 2, pp. 421-440. 2007.
DOI: <https://doi.org/10.1111/j.1540-4560.2007.00517.x>
- [8] Cross, S., Bacon, P., Morris, M. The relational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8, no. 4, pp. 791-808, 2000.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8.4.791>
- [9] K. M. Lee, Early childhood teachers happiness, job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Korean society of early childhood care and education*, vol. 4, pp. 133-152, 2009.
- [10] H. W. Ji, B. L. Soon, A study on the effects of structural relationships on early childhood educational teachers' happines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3, pp. 167-194, 2013.
- [11] Y. H. Zhang, A Study on the Infant Teachers' Sense of Happiness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 Dongguk University, 2014.
- [12] Psychology glossary-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4.
- [13] Block, J,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349-361, 1996.
DOI: <https://doi.org/10.1037/0022-3514.70.2.349>
- [14] J. H. Ahn, A Difference Between Burnout and Ego-Resilience By Development of Professionalism of Kindergarten Teachers, 2010.
- [15] E. G. Park,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Perceived Well-being and Ego-resilienc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12.
- [16] S. S. Kim, 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s stress coping style and ego-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JKOAECE*, vol. 17, no. 3, pp. 65-83, 2012.
- [17] S. B. Lee, H. W. Ji, 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 of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on Ego-Resilienc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4, no. 3, pp. 263-281, 2013.
- [18] L. J. Kim, Y. A. Hong, The Influence of Ego-resilienc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Job Stress on Professional Recognition of Childcare Teachers, *Journal of Korean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9, no. 4, pp. 55-74, 2013.
DOI: <https://doi.org/10.14698/jkce.2013.9.4.055>
- [19] I. H. Hae, M. P. Seong, H. T. Jeong, The mediating effect of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go-resilience and happiness of pre-service child care teachers. *The Journal of Eco-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4, no. 2, pp. 193-218, 2015.
- [20] Lyubomirsky, S., King, L. A., & Diener, E., The benefits of frequent positive affect: Does happiness lead to success? *Psychological Bulletin*, 131, 803-855, 2005.
DOI: <https://doi.org/10.1037/0033-2909.131.6.803>
- [21] S. O. Song, H. J. Kim, Y. J. Sung, The Effects of the Workplace Satisfaction and Happiness According to Child-Care Teachers' Awareness, *Journal of Korea and Child Care and Education*, vol. 15, no. 3, pp. 89-107. 2015.
- [22] M. S. Choi, D. H. Jo, The Effect of Happiness on the Job Satisfaction and Efficac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4, pp. 239-256, 2015.
- [23] A. L, Kyoung,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happines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ir job related wearables : Based o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role performing ability, turnover intention, 2010.
- [24] S. H. Yun, Developing a Global Citizenship Indicator for University Students. 2017.
- [25] M. R.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arly Childhood Teacher's Well-being and Commitment. Konkuk University Master's Thesis in Master's Degree. 2010.
- [26] S. J. Lim, E. J. Lim, H. W. Lee, Infant teacher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ts impact on the research about happines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33 , no. 3, pp. 301-318, 2013.
- [27] S. Y. Kim. Early childhood teachers ' euphoria, enthusiasm for the teaching profession, job satisfaction, teacher efficacy, and teacher-infant interactions and Analysis of the structural analysis between Early Childhood Education. Guangzhou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general. 2014.
- [28] J. C. Min, A sense of euphoria and ego identity of gymnasts infant teacher efficacy and interaction and The Influence of job satisfaction and its impact on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keimyung University graduate. 2012.
- [29] K. E. Lee, M. J. Kim, A Study on the Community Social Workers' Experiences of Family Intervention in Case Management with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43, pp. 65-94. 2012.
- [30] S. S. Kim, Preparatory early childhood teachers coping with stress and recognize the ego-resilience and its

impact on the euphoria. *open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vol. 17, no. 3, pp. 65-83, 2012.

- [31] S. B. Lee, H. W. Ji, The Effect of Early Childhood Teacher of Life Satisfaction, Psychological Well-Being on Ego-Resilience, *Journal of Children's Literature and Education*, vol. 14, no. 3, pp. 263-281, 2013.
- [32] I. H. Hea, H. T. Jeong, H. H. Sung, Impact of Resilience, Teacher 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n Happiness in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17, no. 3, pp. 411-432, 2013.
- [33] E. G. Park, Preparatory early childhood teachers aware of bye and ego-resilience. Ewha Women's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ster's dissertation, 2012.
- [34] Noddings, N. Happiness and Education. Lee Ji-Heon, Kim Sun, Kim Hee-Bong, Chang Jung-Hoon ball station. Seoul: Seoul: suspension per Noddings, N. (Nuclear power plant published in 2003), 2008.

김 안 나(Kim-An Na)

[정회원]



- 2004년 2월 : 경남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석사)
- 201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유아교육과 (교육학박사)
- 2011년 3월 ~ 2014년 2월 : 중부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2017년 7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복지학부 아동보육전공 교수

<관심분야>

유아교육, 아동보육